

이 책은 미국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개인사와 나이키의
기업사를 살펴 보면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를 예로 든 이유는 이들이 미디어의
힘과 그에 의해 촉발된 자본주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막강한 미디어의 힘은 마이클 조던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고, 그가 신었던 나이키는 세계인의 신발이 됐다.

책갈피산책

《마이클 조던, 나이키, 지구 자본주의》

역사학 교수가 짚어낸 자본과 문화의 대립

월터 레이피버 지음 | 이정엽 옮김
문학과지성사/A5신/216면/8000원

정준영 |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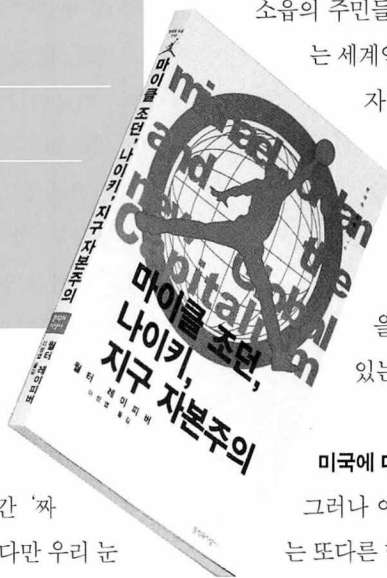
나이키는 운동화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선수다. 조던이 나이키를 신고 경기를 벌이자 갑자기 자본주의는 지구적으로 확대된다. 물론 자본주의는 공상과학 코미디 영화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던이 나이키를 신는 순간 ‘짜자잔’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밑에는 오랫동안 진행돼온 역사적 과정이 있다. 1970년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특정 한 운동 선수가 그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전지구적 테크놀로지”가 갖춰진 것이다. 테드 터너와 루퍼트 머독이 이끌었던 이런 하부구조의 발전에 힘입어 NBA와 조던은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됐고 그에 편승해 나이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조던과 나이키, 미디어에 의한 자본주의 변화 보여줘

월터 레이피버의 《마이클 조던, 나이키, 지구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 변화는 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거대 자본에 의해 광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발전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조던의 개인사와 나이키의 기업사를 시시콜콜히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초국적 기업과 엘리트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즉 초국적 기업인 나이키와 조던이라는 엘리트는 새로운 미디어의 힘과, 그에 의해 촉발된 자본주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 변화의 또 다른 측면

인 전세계의 미국화라는 현상도 설명해준다.

당장 농구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다. 19세기 영국에서 기원한 많은 근대 스포츠들과 달리 농구는 철저하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즐기던 경기다. 또 농구는 TV에 매우 적합한 경기기도 하다. 농구의 넘치는 속도감과 “카메라가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제한된 공간이 TV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기가 국제적인 현상이 된 것은 마이클 조던이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였다. 그리고 미국의 일개 농구선수인 조던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미국화된 막강한 미디어였다. 이 미디어 덕분에 정치적으로는 유아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 단지 농구실력만으로 신의 반열에 올라 중국 오지의 티베트인과 피레네 산맥 소읍의 주민들에게까지 숭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농구는 세계인의 스포츠가 됐고 그 뒤를 받치고 있던 나이키는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신발이 됐다. 그런데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성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문화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판매했으므로 나이키의 확산은 또한 전통적인 문화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 대 문화의 전투다.



미국에 대한 반발에 미국인들 적응하도록 촉구해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불행의 세계화라는 또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조던의 도박성향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이 전세계에 전파됐듯 동아시아 나이키 공장의 노동착취도 전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조던이 은퇴하고, 나이키의 스타일은 구식이 돼가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환상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출간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시기기 때문이다. 레이피버는 미국인들이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수세기 전부터 지켜 오던 ‘고립주의’를 버리고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에게서 사소한 의문 하나가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 끝부분의 짧은 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조던과 나이키의 세세한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이 과연 필요한 일이었을까? 미국의 대외관계를 전공하는 근엄한 역사학 교수가 쓴 이 책은 역사학의 지평 확대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상업성의 압력에 눌려 갈수록 왜소해져가는 인문학의 위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

정준영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문학박사)했고, 현재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있다. 역서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등이 있다.